



마이산

한폭의 수목화 연상

진안읍내 어느 방면에서나 눈에 띄는 마이산은 이름이 철에 따라 네 가지이다. 봄에는 안개를 뚫고 나온 두 봉우리가 쌍봉에 같다하여 뜻대봉, 여름에 수목이 울창해지면 용의 뿔처럼 보인다고 용각봉, 가을에는 단풍 든 모습이 말의 귀 같다 해서 마이봉,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아 먹물을 찍은 붓글처럼 보여 문필봉이다.

마이산 오르는 길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명한 마이산 탐사가 있는 남쪽에서 오르는 코스이고 다른 하나는 북쪽에서 내려가는 코스이다.

마이산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경계에 넓게 펼쳐져 있는 말의 귀모양으로 생긴 두 봉우리를 말하는 것으로 섬진강과 금강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동쪽에 솟아있는 솟대이봉은 680m이며, 서쪽에 솟아있는 암마이봉은 688m이다. 마이산은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으나 관목과 침엽수, 활엽수 등이 군데군데 자라고 있으며, 화암굴 탐굴 금당사 등이 있다. 특히, 두 봉우리 사이의 남쪽 계곡에는 돌로 쌓은 수십 기의 마이산 탐사가 있기도 하다.

마이산에는 놀이와 휴식에 적합한 관광 등산코스로도 유명하며 입구 3km 진입로에는 벚꽃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어 매년 벚꽃을 보기위해 찾는 상춘객들로 붐빈다.

- 주소 :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255 (단양리 산17-1)
- 문의처 : 063-40-8761~5
- 이용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 휴무일 : 무휴
- 남부 관광안내소 : 063-40-2651
- 북부 관광안내소 : 063-43-2652
- 홈페이지 : <http://maesanjinan.gov.kr/>

청정자연 겨울 정취 즐기고... 심신도 편히 쉬고



흥삼 스파

건강식품 홍삼 활용
고급스러운 가족 힐링공간

진안의 홍삼을 활용한 고급 휴양 시설인 진안흥삼스파는 홍삼 한방과 음양오행 프로그램을 가미한 국내 유일의 스파 테라피 존이다. 건조, 아쿠아, 건식, 습식, 버블의 오행프로그램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진안 흥삼 스파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홍삼한방과 음양오행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국내의 유일한 양생목적형 스파이다. 국내의 기존의 스파와는 달리 각종 건강 관련시설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몸과 마음에 진정한 건강과 휴식을 취하게 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목적형 스파시설과 서비스 진안흥삼스파는 데스태이션 스파와 퍼블릭 스파가 함께 구성되어 있다. 개인별 건강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테라피 데스태이션 스파는 다양한 테라피를 받을 수 있는 프라이빗 공간으로 퍼블릭 스파는 가족들과 편안하게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음, 양 풀과 욕상정원의 노천 풀로 구성되어 있다.

데스태이션 스파는 개인별 한방체질 진단실 컨설팅에서부터 아쿠아 테라피, 명상 테라피, 마인드 테라피, 건조 테라피, 무브먼트 테라피, 릴렉스 프로그램, 웰빙 식사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체험할 수 있다. 국내, 외 전문가들이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맞춰 제공하는 최고의 컨설팅과 테라피를 받아 볼 수 있다.

하늘정원에서 마이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야외 스파는 목까지 홍삼거품을 채워 목욕을 한 뒤 안개와 이슬비로 샤워를 할 수 있다. 또 나무 침대에서 마른 약초와 건초를 덮고 쉴 수도 있다. 2층과 3층에서 웰빙스파를 즐기고 욕상에 위치한 하늘정원에서 마이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야외 스파는 일본의 노천탕을 떠올리게 한다.

진안흥삼스파의 특별함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여행지 100선 FunFun한 여행" 다류에도 선정되어 방송미디어 및 여행작가들로 부터도 꼭 가보아야 할 여행지로도 소개되고 있다.

또한 인근 흥삼빌은 마이산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28개 객실을 갖추고 있다. 따뜻하게 데워진 물의자에 앉아 목까지 차오르는 홍삼거품으로 전신 마사지를 한 뒤 이슬샤워(金·태극버블센스터라피)를 즐길 수 있다.

마른 약초와 건초 더미 위에 흰 천을 깔고 누워 피로를 해소(木·양생허브테라피)할 수도 있다. 또 홍삼 액기스를 넣은 탕에서 수압 마사지(水·양생아로마테라피)를 즐기고 얼굴에 머드팩(火·양생하모나테라피)을 바를 수 있다.

어머니 뱃속 양수 안에 떠 있는 듯 물 위에 편안히 누워 수중 스파카로 들려오는 음악을 듣는 사운드플로팅공간도 흥미롭다. 야외노천탕 아쿠아존은 마이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하며 두 한족열(頭脚足熱)도 가능하다.

- 주소 : 진안군 진안읍 의사양길 16-10 (단양리 743)
- 문의처 : 063-43-0393
- 이용시간 : 오전 9시~저녁 8시(입장 오전 9시 ~오후 5시)
- 휴무일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하/월)
- 입장료 : 유료
- 홈페이지 : <http://www.redginsengspakr>



구봉산

즐거은 아홉개 봉우리 하늘
절벽 넘는 등산길 '인기'

아홉 개의 봉우리가 뚜렷하여 구봉산(1,002m), 덕태산(1,113m), 운장산(1,126m) 등과 함께 금남정맥에 해당되며, 금강 상류이다. 서북방향에는 1,000m 높이의 북두봉이 있다.

기암괴석의 바위산으로 남쪽의 지리산, 천황사 쪽에서 바라보면

뾰족하게 솟아있는 아홉 개의 봉우리가 뚜렷하여 구봉산이라 부른다. 운장산에서 구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흐르는 물탕골, 연화골의 계곡물은 주자천과 만나 금강으로 흐른다. 특히 물탕골 계곡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으며 경관이 뛰어나다.

설악산의 공룡능선을 축소한 형태로 주천면의 관문인 구봉산은 운장산의 동쪽으로 이어진 산인데, 정상까지 오르는 데 약 3시간 정도 걸린다. 봉우리들은 천왕봉을 주봉으로 산들이 깎아 세운 듯한 절벽으로 형성되어 올라가기가 어렵고 험준하다. 구봉산 남동쪽 기슭에는 875년에 창건한 천황사가 있는데 현재의 규모는 보잘 것 없다.

구봉산은 운장산과 마이산의 유명세에 가려져 있던 탓에 찾는 이가 많지 않은 산이었지만, 최근에 점차 등산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름에서 말해 주듯이 아홉 개의 봉우리가 즐지어 늘어진 모습이 흡사 설악산의 용마장성이나 공룡능선을 축소한 형태를 띠고 있다.

덕유산과 지리산의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산행기점인 운봉리 일대는 해발 300여 m로 비교적 고지대이긴 하지만 1봉(656m)까지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 한다. 이후 마지막 봉우리인 9봉이 1천2m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700여m를 올라야 하는 셈이므로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편에 속한다. 단 조롭지 않은 산길이라 지루하지 않으며 암봉을 오르내릴 때마다 변하는 주변의 풍경에 경이로움마저 갖게 한다. /정리: 진안=우태민 기자

- 주소 :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구봉산
- 문의처 : 063-40-2455
- 이용시간 : 무제한
- 휴무일 : 무휴
- 입장료 : 무료